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	과 장 이호조 사무관 도현미	042-481-5389 042-481-5475
2021년 6월 29일(화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.2% 수준입니다

특허청은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◇ 6.28일 서울경제 <무효율 일본의 3배…국내 특허 ‘속 빈 강정’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[보도내용]

- 우리나라 ‘무효심판 처리건수 대비 특허무효 비율(특허무효율)’이 5년 평균 47% 수준이고, 특허심사관 부족과 그에 따른 심사 투입 시간 부족을 주원인으로 보도함

[특허청 입장]

- 최근 5년간(’16~’20년)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비율은 0.39%이며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율은 0.2% 수준임
- 기사에서 지적한 특허무효율 47%는 무효심판 청구건 대비 인용건수임
 - 한편 무효심판 청구 비율은 5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어*, 출원인의 심사결과 수용도 측면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됨
- * (’16) 0.49% → (’17) 0.44% → (’18) 0.39% → (’19) 0.38% → (’20) 0.28%

〈특허 무효율〉

(단위: %, 건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평균
①특허 무효 심판 청구율	0.49 (530/108,876)	0.44 (527/120,662)	0.39 (459/119,014)	0.38 (477/125,661)	0.28 (383/134,766)	0.39%
②특허 무효 심판 인용율	49.1 (240/489)	44.0 (337/766)	45.6 (251/551)	55.2 (307/556)	42.6 (185/434)	47.6%
③특허 무효율	0.22 (240/108,876)	0.28 (337/120,662)	0.21 (251/119,014)	0.24 (307/125,661)	0.14 (185/134,766)	0.21%

※ ① 무효심판 청구건수/특허등록건수, ② 무효심판 인용건수/무효심판 심결건수,
③ 무효심판 인용건수/특허등록건수

□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

-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, 특허 심사관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
- 심사관 수행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'선행기술조사사업'을 확대하는 등 심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,
-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('19.11)하고, 정확한 심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를 확대*하고 있습니다.

*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(건): ('19.11~12월) 525 → ('20) 4,184 → ('21) 4,500(계획)

☞ 특허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심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고품질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